

CEO Lounge

MDS테크놀로지, 공동대표 체제 전환



이상현 사장



나기철 사장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 MDS테크놀로지는 94년 창립 이래 회사의 경영을 맡아온 김현철 사장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회사 운영 및 국내의 사업 전반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이상현 사장과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 임베디드 솔루션사업 총괄을 맡게 된 전 디에스티 나기철 사장을 선임하여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하기로 하였다. 공동 대표를 맡게 된 이상현 사장은 코오롱그룹 기획조정실 등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지난 2001년 MDS테크놀로지에 합류하여 경영관리, 기획, 영업, 마케팅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해온 일등공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나기철 사장은 한국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해외영업, 두인 전자 영업 및 기획이사를 거쳐 98년 디에스티를 설립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임베디드 OS 총판으로서 매년 30%의 고성장을 이루어내며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한편 지난 1월 22일자로 DST와의 합병을 법적으로 완료한 MDS테크놀로지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합병 후에도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0년 세계 5대 임베디드 토탈 솔루션 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이엔지, 새 대표 이순구 선임



신성이엔지는 이순구(54) 부사장을 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이 사장은 1980년 신성이엔지니어링(현 신성이엔지)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연구개발 경영전략, 영업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쳐 입사 28년만에 사장으로 승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완근 대표이사 회장과 이순구 대표이사 사장 각자대표 체제로 복귀했다.

인포섹, 신임 대표이사에 김봉오 선임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전문업체인 인포섹은 신임 대표이사에 김봉오(49) 전임 SKC&C 상무를 선임했다. 김봉오 신임 대표이사는 유공, 대한텔레콤을 거쳐, SK C&C 전략사업본부, Industry 본부장을 역임하기까지 약 27년간 사업기획과 아웃소싱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영전략과 영업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지난 2000년 6월 설립된 인포섹은 정보보호컨설팅, 보안솔루션 유통 및 SI, 보안관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2007년에 약 3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국내 1위의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엔하이테크 박호진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엔하이테크(주)의 박호진(46)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박호진 대표는 '84년부터 약 4년간 세계적인 전자부품 회사(주)롬의 한국지사인 (주)롬코리아에 입사, 발광다이오드(LED)의 연구개발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LED를 일본에 역수출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94년에 회사를 설립하였다. 동사의 LED 관련 제품은 해외에서도 그 명성이 높아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LED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출실적으로 동사는 2001년 무역의 날 행사에 1백만불 수출실적을 거둔데 이어 '06년 2천만불 수출탑에 이어 '07년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옵니텔, 신임사장에 유성원 선임



모바일방송 및 콘텐츠 업체인 옵니텔은 지난해 12월 합병기로 한 엠닥스의 유성원 대표이사를 옵니텔 신임사장으로 선임했다. 유성원 신임 사장은 동부그룹 기획조정실, 동아TV, LG텔레콤을 거쳐 지난 2000년 오픈망 전문업체인 엠닥스를 창업한 벤처기업가다.